

제197회 중앙종회(임시회) 인사말

출가 수행자로서 본분사에 따르는 정진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산과 들녘에 생명이 움트는 절기입니다. 의장스님을 비롯한 의원스님들 모두가 삼라만상 가득히 깃든 봄기운과 함께 종단의 주요 과제들을 지혜와 원력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제34대 집행부는 겨우내 많은 토론과 준비를 진행하고, 앞으로 4년간 종단이 나아갈 방향으로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의 영역으로 정책 기조를 정리했습니다. 사회와 이웃의 곁에서 함께 하는 불교의 상을 확립하고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각종 정책을 차분히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과제 중에서는 총본산 성역화, 총무원장선거제도 개선방안,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도의 여망과 과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으로는 문화재보수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들의 각종 조치에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49재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침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여 바로잡고, 사찰과 관련한 신도들의 보시는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에 종단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앞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수행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종회에 집행부는 불기2557(201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승려복지법」, 「법인법」,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건입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스님들도 국가의 공적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제도 활용을 기본으로 스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설계를 위해 수행연금 지급시기만을 1년 정도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정기 중앙종회에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법인법 역시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은 수백여 개에 이르는데 반해 등록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출가와 단기출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 부서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출가자 확대와 출가자의 위상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살펴서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종헌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참종권 문제는 지난해 이미 여러 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원만하게 논의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지혜의 눈으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 애종의 마음과 경륜을 가지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역할이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종단 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안과 제도 개혁을 통해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3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